

보고:북한 도협 대표단과의 만남

남·북한 도서관계 교류의 첫 걸음

이 두 영 · 한국도서관협회장

한국도서관협회는 최근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통해 이른바 우리 “도서관문화의 세계화” 사업에 힘써 왔다. 일본과 중국의 도서관협회와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각각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도서관 협력의 체제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6년 IFLA총회”의 서울 유치가 성사된 것 등은, 이 같은 노력이 가져온 성과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00년은 남북 도서관계가 처음으로 만남을 가진 뜻 있는 해로서 기억될 것이다. 2000년 10월 25일, 일본 오키나와(沖縄)에서 개최된 일본도서관협회의 제86회 전국 도서관대회에서 남북한 도서관협회 대표단이 손을 맞잡았다. 우리 대표단은 한·일 도서관협회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석한 것이었으며, 북한은 일본도서관협회의 별도 초청에 응함으로써 남북 도서관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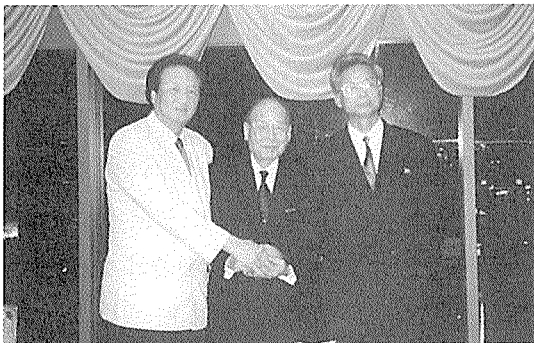
남북한 도서관협회 대표단의 만남은 실로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엔 진정 가슴 설레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필자는 IFLA나 ALA 회의는 물론, 국제세미나 발표나 국제회의 축사 등 해외출장의 경험이 많은 편이지만, 이번 북한대표와의 만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 설레고 긴장되는 감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남북한 대표의 첫 만남과 최초의 대화는 2000년 10월 24일, 오후 7시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那覇市)에 있는 오키나와 오션뷰호텔(Okinawa Ocean View Hotel)에서의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 초청 만찬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북한 측 인사는, 최희정 인민대학습당 총장(최 총장은 조선도서관협회의 최고 책임자이며, 북한의 각료급 인사라고 소개되었다.)

정태언 인민대학습당 실장 · 조선도서관협회 서기장

한성빈 인민대학습당 대외교류처 부원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 초청 만찬장에서, 좌로부터 필자, 쿠리하라 이사장, 최희정 총장〉

우리측은,
 이두영 한국도서관협회장(필자)
 조원호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이현주 한국도서관협회 총무부장
 그리고 양측을 한 자리에 초청한 일본도서관
 협회에서는
 쿠리하라 히토시(栗原 均) 이사장
 오사와 마사오(大澤正雄) 상무이사
 사카가와 레이코(酒川玲子) 사무국장
 이노우에 마나부(井上 學) 부장
 마쓰오카 카나메(松岡 要) 부장
 아가쓰마 시게오(我妻滋夫) 부장 등이 동석하
 였으며,

이밖에 일본도서관협회 주선한 통역 및 안내
 역으로 한정치·강희삼씨(재일본 조선인총연합
 간부/북한측)와 조재순씨(동경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우리 측)가 자리를 함께하였다.

남북한 첫 만남에서는 상견례 및 참석자 소개
 가 있는 다음 쿠리하라 이사장, 최희정 총장 그
 리고 필자의 인사말이 있었고, 만찬에서의 대체
 적인 대화는 남북한 양측이 모두 통일을 염원한
 다는 것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분위기
 에 대한 질문들이 오갔고, 인민대학습당과 국립
 중앙도서관의 역할 및 활동상황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주로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만찬 마지
 막 부분에서 우리는 북한 대표단에게 '한국십진
 분류법' 책자 1질을 기념품으로 건넸다.

두번째의 만남은 다음날이 10월 25일 오전
 10시, 일본을 포함한 3국 대표단회의에서 이루
 어졌다. 대표단 회의는 일본도서관협회 신임 회
 장인 나가오 마코토(長尾 眞) 교토대학 총장이
 회의를 주재하였고, 3국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각기 자국의 도서관협회 및 도서관현황 및 활동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최희정 총장은 현재 인민대학습당의 전자도서
 관 개발 및 이용수준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그
 러나 인민대학습당의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
 군까지 봉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과 과학기술정
 보검색시스템의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아직 일어,
 중국어 자료에 대한 검색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앞으로 일본도서관협회와의 보다 활
 발한 교류를 희망하면서 남한 협회와의 교류 또
 한 크게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세 번째의 만남은 10월 25일 오키나와현 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였다. 오찬은 역시 3국 도
 서관협회 대표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격식 없는 대화가 오갔다. 이 자리에
 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분위기는 필자는 북측의
 최희정 총장과 매우 가깝게 느껴지는 감정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다. 객지에서
 만나 바로 이처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의 남과 북은 역시 '통역'이 필요없는 한 민족이
 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날 제86회 전국도서관대회는 오후 1시,
 오키나와 무도관에서 총 2,000여명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시작되었다. 개회식에서
 는 일본 문부대신의 격려사에 이어서 남북한 대
 표가 차례로 축사를 하였다.

개회식 축사의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필자는
 옆에 앉은 최희정 총장과 잠시 교감한 뒤에 최
 총장의 축사가 끝나자마자 필자가 나가서 최 총
 장과 악수를 하고, 단상에서 함께 손을 높이 들
 어 우리는 통일을 염원하는 한 핏줄의 한 민족이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였다. 이 때 식장 안에서
 는 환호와 박수가 터졌고 이 장면은 다음날 오키



〈일본도서관협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식장 단상에서, 좌로부터 최희정 총장, 필자〉

나와 일간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다.

같은 날 오후 6시, 일본도서관협회가 주최한 공식 리셉션(교류회)에는 약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남북 대표단은 나란히 주빈석에 자리하게 되었고 사회자에 의해 이어지는 축배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 대표단들이 서로 어울리는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보였다.

다음날 10월 26일은 일본측 안내로 남북한 대표들이 함께 어울려서 오키나와의 평화 기념공원, 오키나와 공문서관, 오키나와 박물관, 수리성 등을 함께 둘러보았다. 특히 평화 기념공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현에 징용당해와서 순직한 남·북한 사망자 위령비를 둘러보고 함께 애도를 나누기도 하였다. 하루의 일정이 끝난 저녁시간에는 다음날 오키나와를 떠나는 북한측 대표들과 곧 다시 만나게 되기를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석별의 잔을 나누었다.

이렇듯 남북한 도서관협회 대표들의 역사적인 만남과 대화의 시간들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 아침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끝났다. 비록 공식 일정으로 짜여진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한 핏줄의 동족이기에 서로가 오랫동안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금새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번의 첫 만남에서는, 우리 협회가 그 동안 구상해 온

- 남·북한 도서관현황의 상호 이해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 등의 개최
- 소장 자료의 목록 등 서지자료의 교환
- 고문헌 등 민족의 전적문화재에 대한 교류와 공동이용
- 각종 도서관자료의 전시회 개최
- 도서관정보화 등 운영 기법의 상호 지원
- 2006 IFLA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및 우리 민족 도서관문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

등의 아이টে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그 첫 물꼬를 띄워 놓은 만큼 앞으로 우리 정보의 이해와 지원을 얻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북측과도 꾸준히 협의, 실현 가능한 것 중에서 손쉬운 사업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극복하고 우리 남북한의 도서관인들이 이렇게 만나 흥금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기회를 기어코 성사시켜 준 일본도서관협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특히 쿠리하라(栗原) 이사장, 사카가와(酒川) 국장,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실무를 맡아 총횡으로 수고하여 준 이노우에(井上) 부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최희정 총장의 설명과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한 **조선도서관협회 및 인민대학습당의 현황**

조선도서관협회

1953년 7월 23일 창설된 조선도서관협회는 “도서관 사업분야에 관한 사상 이론과 그 구현인 조선노동당의 과학문화정책의 실현에 힘쓰고, 도서관학 또는 서지학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론 실천적 문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각 도서관간과 도서관원간의 제휴와 협조를 강화시키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사회학술단체이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는 1970년 8월에 가입하였다.

조선도서관협회 사업내용은

- (1) 도서관을 지도하는 국가행정기관과의 제휴에 기초해 도서관 사업발전계획 책정에 참가하는 한편, 도서관운영연구소의 협력을 얻어 도서관학과 서지학, 도서관정보학 분야의 과학연구활동을 추진하고, 과학연구도서관, 대학도서관, 도, 시, 군(구역), 노동자구 도서관, 시, 군(구역) 학생도서관, 공장기업소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에 대한 실무방법의 어드바이스를 행한다.
- (2) 전국의 산하도서관에 대한 장악과 지도, 도서관 사업방향과 도서관법 시행상의 제문제, 학술논문집, 목록의 출판 등을 협의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회원 중에서 도서관학 및 서지학 분야에서의 활동 내용과 수준의 통일을 위해 전반적 활동을 표준화, 규범화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이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소개 선전하는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경험교환회 등을 개최한다.
- (4)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의 가맹국협회로서 IFLA와 그 분과위원회, IFLA에 가맹하고 있는 국제기구, 각국 도서관협회와 대표적 도서관과의 출판물, 출판정보, 국제대출, 도서관 운영기술의 발전 등의 교류를 촉진하는 활동을 한다.

조선도서관협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상무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 국가중심 및 대학도서관 분과위원회
- 일반도서관 분과위원회
- 학교도서관 분과위원회
- 아동도서관 분과위원회
- 도서관학이론 연구분과위원회
- 서지학 조정 연구분과위원회
- 장서 및 독자 서비스 조정분과위원회

- 도서관관리 및 기술조정분과위원회
- 국제교류 분과위원회

조선도서관협회 회원은 정회원(전국의 도서관과 도서관학 및 서지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 부서)과 준회원(도서관학 및 서지학 분야의 과학연구와 실무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으로 구성된다.

조선도서관협회에서는 “도서관잡지”(격월간), “조선도서관협회 연보”, “도서관원참고자료” 및 “IFLA 소식” 등을 발행하고 있다.

인민대학습당



(인민대학습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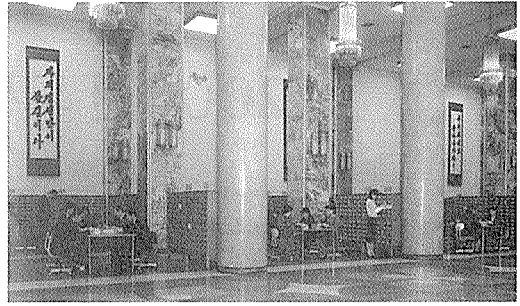
인민대학습당은 1982년 4월에 개관, 건축면적은 10만㎡, 열람실과 강의실, 통보실, 질의응답실, 음악감상실을 비롯한 600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장서능력은 3000만책, 1일 수용능력은 1만2000여명으로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사회의 인테리화의 중심기지, 노동자의 통신종합대학, 전인민학습의 전당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민대학습당은 정규교육과는 다른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형식은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질의응답, 통보강의, 강연, 컴퓨터망에 의한 교육 등이 있고, 과학이론강의, 과학기술강습, 집중강의, 외국어강의 등이 정기적으로 행해진다. 또한 질의응답서비스, 외국도서의 번역서비스, 신간도서안내 서비스, 발명권 문헌센터 및 특허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있다. 강의계획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독자의 편의를 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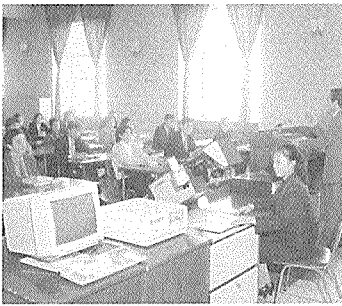
하고 있다.

인민대학습당은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기지로서 열람대출, 통신대출, 자료의 조사연구제공, 독자를 위한 문헌의 영인복사를 수행하며, 근로자의 도서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대규모 공장, 기업소나 건축장에 출장해서 현지강의 신기술통보, 이동문고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인민대학습당은 국가적인 문헌기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의 각급 도서관에 대한 기술적, 실무적 지도도 행하고 있다.



〈종합목록홀〉



〈신기술통신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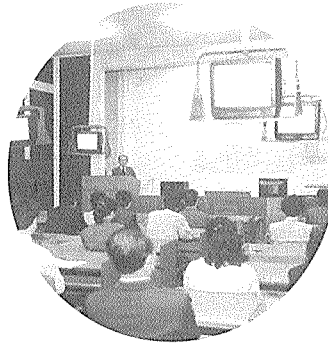
〈컴퓨터문헌검색서비스실〉



〈마이크로폼 열람실〉



〈현지서비스실〉



〈기초과학강의실〉



〈컴퓨터 · 프로그램개발실〉



〈비디오강의실〉



〈특허열람실〉



〈도서기호 전송장치를 이용한 도서대출〉